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과 전공만족도가 학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

이재겸, 김종경*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COVID-19 Depress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ae-Kyeum Lee, Jung-K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을 알아보고, 코로나 우울과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여 학업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 일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와 G시에 위치한 일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로 총 111명이었고, 자료수집은 2021년 09월 27일에서 2021년 09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을 자가설문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분석을 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시행하였다.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우울은 전반적인 전공만족($t=3.407, p=.020$) 및 지원동기($t=4.124, p=.008$)와 영향이 있었고, 전공만족도는 학점($t=5.065, p=.008$), 학교만족($t=17.151, p<.001$)과 영향이 있었으며, 학업 지연은 지원동기($t=2.808, p=.043$)와 영향이 있었다. 또한 상관관계에서 학업지연은 코로나 우울($r=.412, p<.001$) 및 전공만족도($r=.224, p=.018$)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코로나 우울 및 전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3%이었다. 결론적으로 학업지연은 코로나 우울과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어 대학 차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여 학업 지연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rona blues (coronavirus disease 2019 associated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on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11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two universities located in D and G City.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7 to 30, 2021.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WIN. The methods used were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rona blues were affected by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3.407, p=.020$) and motive ($t=4.124, p=.008$). Satisfaction with the major was influenced by college satisfaction ($t=17.151, p<.001$), and motive ($t=5.065, p=.008$).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influenced by motive ($t=2.808, p=.043$). In addition, corona blues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r=.412, p<.001$), which in turn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major satisfaction ($r=.224, p=.018$).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were corona blues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he adjusted R-squared value was 22.3%. In conclusion, corona blues negatively affected th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their major and academic performanc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nd apply strategies and plans to reduce corona blue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onclusion, academic procrastination is related to corona blues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Henc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reduce academic procrastination by establishing and applying strategies and plans to reduce the corona blues of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ies.

Keywords : Students, Nursing, COVID-19, Depression, Procrastination, Academic Performance

본 논문은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gc21043)

*Corresponding Author : Jung-Kyoung Kim(Gimcheon University)

email: jj2c@nate.com

Received April 21, 2023

Revised June 12, 2023

Accepted July 7, 2023

Published July 31, 2023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비말에 의한 전파로 인해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초래한 질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발생하고 문화생활 및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1]. 이러한 변화와 제약은 대중들에게 대중은 스트레스 증가 및 삶의 질 감소로 '코로나 우울(Corona Blue)'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상 생활과 경제,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감, 스트레스나 걱정 등으로 발생하는 우울 증상을 의미한다. 코로나 우울은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20~30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건강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우울 위험군은 각각 24.3%, 22.6%로 50대(13.5%)와 60대(13.5%)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3]. 또한 Kim[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타인과의 만남 제약 등으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유가 제한되는 환경 변화로 인해 우울감이 가중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20~30대와 대학생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생활 변화는 교육 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비대면 원격강의'를 적용한 수업방식 변화다[5]. 정상적인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며 교육부 운영 방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를 시작으로 비대면 원격강의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강의를 수강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6], 실시간 수업이 아닌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과제물로 대체함으로써 교수-학생 간의 소통 및 상호작용의 부재가 있다는 점과[5] 비대면 시험 시 부정행위가 가능하며, 교수자의 부재로 인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7] 수강생들은 학습몰입이 어렵고 전공만족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8]으로 간호학과를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의 적

응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진로탐색,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전공만족도 강화가 필요하다[9].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10]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감이 높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수월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낮을 경우, 학생들이 학업을 소홀하게 하거나 미루게 된다는 선행연구[11]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학업 지연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 지연은 학업을 진행하는 수강생이 과제의 시작 또는 끝을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12]. 이러한 학업 지연은 자기통제능력이 저하된 수강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학습문제로, 실시간 수업보다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과제물 제출 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이다. 30~50대 성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e-Learning 교육을 진행한 선행연구[13]에서 수강생들의 학습이 종료되는 마지막 요일에 접속이 몰려서 학습을 진행하거나 마무리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Lee[14]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보다 학습 몰입을 방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학습 지연을 줄이고 학업성취도를 높여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교내 통학 제한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곧 코로나 우울 증상이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15].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학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건강한 학업적 성장과 올바른 진로 준비를 위해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간호학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09월 27일에서 2021년 09월 30일까지 D광역시에 위치한 1개 4년제 대학과 G시에 위치한 1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이점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권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얻게 되는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8개의 예측 변수(학년, 종교, 학점, 학교만족, 지원동기, 코로나 우울, 학업 지연, 전공만족도)를 고려하여 유의수준은 .05, 효과크기는 .15, 검정력은 .80로 설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109명으로 제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20부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하여 총 111부(92.5%)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어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 우울

코로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6]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울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Chon, Choi와 Yang[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 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선행연구[18,19]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CES-D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우울 상태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입증하여 본 도구를 코로나 우울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4개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우울정서요인 8문항, 긍정적 정서요인 4문항, 대인적 실패감 6문항, 신체적 저하 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n 등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Lee [20]가 전공만족과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 만족' 6문항, '인식적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만족' 3문항이며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3.3 학업 지연

학업 지연을 측정하기 Aitken[2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지연행동 척도를 Park [22]이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지연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59$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55$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우울은 전반적인 전공만족과 지원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 결과 전공 만족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그룹이 보통, 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그룹에 비해 코로나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F=3.407, p=.020$). 또한 지원동기는 기타로 대답한 그룹이 취업, 주변의 추천 및 적성을 선택한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4.124, p=.008$). 전공만족도는 학점, 학교만족, 전반적인 전공만족, 지원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검정 결과 학점은 2.0~2.9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공만족도가 낮았으며, 학교만족은 불만족, 보통보다 만족과 매우 만

족의 전공만족도가 높았고($F=17.151, p<.001$), 전반적인 전공만족은 불만족과 보통보다 만족 및 매우 만족의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지원동기는 취업 및 주변의 추천보다 적성 및 기타로 답한 그룹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학업 지연은 지원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 결과 지원동기가 기타로 대답한 그룹이 취업, 주변의 추천 및 적성으로 선택한 그룹에 비해 학업 지연이 유의하게 높았다($F=2.808, p=.043$)(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 정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은 3점 만점에 평균 1.55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7점이었으며, 학업지연은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Differences between corona blue,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major satisfac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rona blu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6(32.4)	1.61±.52	0.463 (.498)	4.16±.60	0.031 (.861)	3.16±.36	0.537 (.465)
	Female	75(67.6)	1.53±.67		4.18±.74		3.23±.41	
Age	20~22 ^a	68(61.3)	1.52±.56	0.709 (.494)	4.23±.67	3.386 (.037)	3.23±.35	0.427 (.654)
	23~25 ^b	32(28.8)	1.66±.77		4.24±.68		3.23±.44	
	26≤ ^c	11(9.9)	1.45±.54		3.67±.69		3.11±.54	
Grade	1-year ^a	38(34.2)	1.50±.58	0.149 (.930)	4.27±.69	1.169 (.325)	3.21±.39	1.277 (.286)
	2-year ^b	25(22.5)	1.59±.57		4.19±.72		3.29±.30	
	3-year ^c	26(23.4)	1.56±.67		3.96±.71		3.09±.41	
	4-year ^d	22(19.8)	1.59±.74		4.23±.69		3.27±.46	
Religion	Christian	22(19.8)	1.73±.76	1.228 (.303)	4.07±.78	0.947 (.421)	3.30±.26	0.678 (.568)
	Catholic	5(4.5)	1.73±.58		4.65±.32		3.06±.22	
	Buddhism	10(9.0)	1.65±.46		4.16±.72		3.16±.30	
	Other	74(66.7)	1.47±.60		4.17±.68		3.20±.45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a	21(18.9)	1.44±.61	0.617 (.542)	4.41±.53	5.065 (.008)	3.17±.43	0.141 (.869)
	3.0~3.9 ^b	74(66.7)	1.56±.66		4.20±.71		3.22±.39	
	2.0~2.9 ^c	16(14.4)	1.67±.47		3.72±.59		3.21±.40	
College satisfaction	Bad ^a	6(5.4)	2.07±.92	1.689 (.174)	3.55±1.02	17.151 ($<.001$)	3.26±.26	0.723 (.541)
	Nor bad ^b	50(45.0)	1.57±.55		3.84±.66		3.15±.36	
	Good ^c	47(42.3)	1.47±.56		4.47±.44		3.25±.37	
	Very Good ^d	8(7.2)	1.53±1.06		4.95±.06		3.29±.74	
Overall major satisfaction	Bad ^a	4(3.6)	2.50±.88	3.407 (.020)	2.62±.43	60.995 ($<.001$)	3.13±.28	2.020 (.116)
	Nor bad ^b	30(27.0)	1.54±.53		3.53±.44		3.07±.41	
	Good ^c	54(48.6)	1.52±.57		4.38±.47		3.27±.34	
	Very Good ^d	23(20.7)	1.47±.73		4.79±.27		3.27±.40	
Motive	Employment ^a	41(36.9)	1.55±.64	4.124 (.008)	4.02±.72	2.756 (.046)	3.19±.37	2.808 (.043)
	Recommendation ^b	20(18.0)	1.64±.52		3.99±.70		3.20±.31	
	Aptitude ^c	48(43.2)	1.46±.57		4.35±.63		3.20±.37	
					a,b,c,d		a,b,c,d	
	Other ^d	2(1.8)	2.95±1.48		4.72±.31		4.00±1.41	

Table 2. Nursing students' corona blue,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Mean±SD	Range
Corona blue	1.55±.62	0~3
Major satisfaction	4.17±.69	1~5
Academic procrastination	3.21±.39	1~5

3.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은 학업 지연($r=.41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전공만족도($r=-.122, p=.201$)와는 상관관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 지연은 전공만족도($r=.224, p=.018$)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rona blue,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Corona blu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Corona blue	1		
Major satisfaction	-.122 (.201)	1	
Academic procrastination	.412 ($<.001$)	.224 (.018)	1

3.4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업 지연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코로나 우울과 전공만족도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만족과 지원 동기 그리고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업 지연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3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이 서로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985로 모두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15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코로나 우울($\beta=.446, p<.001$), 학습 지연($\beta=.725, p=.001$)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지연에 대한 설명력은 22.3%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academic procrastination

Spec.	B	SE	β	t	p
Constant	2.111	.229		9.219	.000
Corona blue	.282	.053	.446	5.300	.000
Academic procrastination	.159	.048	.278	3.307	.001
Durbin-watson	1.913				
F(p)	17.631($<.001$)				
Adjusted R ²	22.3%				

4. 논의

간호대학생을 훌륭한 인성을 함양한 의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역량 함양 및 다양한 교내활동 참여를 통해 타인과 다양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23].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를 못하게 된 간호대학생들은 코로나 우울,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학업 성취도 저하, 학업 지연 등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25].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의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코로나 우울은 3점 만점에 평균 1.5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의 연구[26]에서 2.80점(4점 만점),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Song과 Jung의 연구[27]에서 0.8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및 문화생활의 제약과 대학생활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성이 제한되며 정신 건강, 특히 코로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내포하고 있다. 추후 다가올 펜데믹 상황의 대응 수단으로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일상생활 유지를 보장하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은 전반적인 전공만족과 지원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인 전공만족이 불만족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코로나 우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yun 등의 연구[28]에서 전공만족도가 불만족한 학생이 만족한 학생보다 우울 점수가 높게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전공과목에서 학습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적절하지 않은 교수법 적용 등으로 인한 전공만족도 감소가 심리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심리적 건강을 위해 전공에 흥미를 잃거나, 전공 만족도가 감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29] 등을 격려하여 불안 및 우울 증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7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등의 연구[30]에서 3.71점, Kim 등의 연구[31]에서 3.75점으로 본 연구가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학기 중 학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와 적극적인 학생 상담 지도체계 구축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점, 대학만족, 전반적인 전공만족, 지원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32]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높은 전공만족도는 곧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자신감 증진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1]. 따라서 낮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와 대학 차원에서 개별 상담을 시행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전공 이해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학습 지원으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업 지연은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도구는 달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의 연구[33]에서 학업 지연이 2.70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도구는 달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im 등의 연구[34]에서 5점 만점에 2.96점, Lim의 연구[35]에서 5점 만점에 3.01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중단되며 온라인 수업 방식의 강의 방식 변경으로 인해 교수 실재감[36]의 부재가 학업 지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동영상

수업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의 연구[37]에서 32.8%의 대상자가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41.8%의 대상자가 비대면 동영상 수업에 불만족을 보고하였다. 이는 대면 강의나 실시간 화상강의에 비하여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간호대학생 스스로 학습 시간을 정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영상을 비대면 강의 시 간호대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 지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은 학업 지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코로나 우울이 높을수록 학업에 지연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학업 지연이 높게 나타난 Kim 등의 연구[38]의 결과, Song의 연구[39]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특히 코로나 우울이 학습 의욕과 집중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학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교수자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 우울증상관리 프로그램 또는 우울증상 관리 증재 등을 격려하고, 학교 내외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코로나 우울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코로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6%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학업 지연이 코로나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우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증재하지 않으면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학업 지연이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학업 지연의 감소가 필요하다. 또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 및 개별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2.3%였다. 특히 코로나 우울이 학업 지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우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증재하지 않으면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학업 지연이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D시와 G시에 위치한 2개 4년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교내활동 제한 등으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증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 코로나 우울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및 개별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와 학업 지연은 중간 이상인 것으로 생각되며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코로나 우울과 학업 지연, 전공만족도와 학업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울증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다양한 지역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행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K.J. Kim, S.Y. Park, K.W. Oh, "Changes in health behavior and chronic diseas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Report No.11-1790387-000384-01)",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2] S.Y. Kim, "A convergence study of stress caused by the epidemic of COVID-19,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 6. pp. 423-431,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6.423>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21). "2Q 2021 COVID-19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99
- [4] K.S. Kim,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ve Mood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by Gender in COVID-19 Pandemic Situation: Using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for 2020",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31, No.3, pp.374-383, 2021.
DOI: <https://doi.org/10.4332/KJHPA.2021.31.3.374>
- [5] J.G. Lee, W.J. Kim, J.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ommi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gave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1, pp.412-419,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412>
- [6] D.J. Lee, M.S. Kim,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23, No.3, pp.359-377, 2020.
- [7] B.J. Koo, A.R. Kim, "The Effect of Instructional Quality, Teaching Presence, and Professor Support on Academic Optimism and Learning Flow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n Online Distance Education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6, No.3, pp.141-148, 2021.
DOI: <https://doi.org/10.21097/ksw.2021.08.16.3.141>
- [8] M.J. Moon, S.H.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burnout and adjustment to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0, pp.1-11, 2016.
DOI: <http://dx.doi.org/10.35873/aimahs.2016.6.10.001>
- [9] S.H. Kim, M.J. Beck,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3, No.3, pp.409-419, 2019.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9.33.3.409>
- [10] J.K. Lee, W.J. Kim, "The Effects of Resilience and Personality Types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6, pp.100-10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6.100>
- [11] C.Y. Yum, E.H. Lee,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Procrastination, Impulsiveness, Learning Strategies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25, no. 4, pp.151-170
DOI: <http://dx.doi.org/10.18230/tjye.2017.25.4.151>
- [12] B.L. Beck, S.R. Koons, D.L. Milgrim,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behavioral procrastination: The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elf-handicapp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Vol.15, No.5, pp.3-13, 2000.
- [13] S.Y. Kwo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of learners' participation, procrastination, learning time and achievement by adult learners' adherence of learning time schedule in e-Learning environments", Korean

-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9, No.3, pp.61-86, 2009.
- [14] J.E. Lee, "Learning Flow, Self-Directednes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in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4, pp.511-517, 2021. DOI: <http://dx.doi.org/10.17703/ICCT.2021.7.4.511>
- [15] Y.H. Kim,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 on Depression in the Ongoing COVID-19 Situ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6, pp.519-534,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6.36>
- [16] L.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No.3, pp.385-401, 1977. DOI: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17] K.K. Chon, S.C. Choi, B.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6, No.1, pp.59-76, 2001.
- [18] D.H. Ryu, H.R. Kim, C.W. Lee, J.Y. Lee, Y.J. Jeong, H.S. Kim,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Adults during the COVID-19: Based on the 2019-2020 Korea Welfare Panel Study", Korean J Fam Pract, Vol.12, no.5, pp.354-360, 2022. DOI: <https://doi.org/10.21215/kifp.2022.12.5.354>
- [19] S.K. Ha, H.S. Lee, H.Y. Park, "Impact of COVID-19 on Individual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cusing on Differences by Age Group," Korean Society of Neurological Occupational Therapy, Vol.10, no.3, pp.111-122, 2021. DOI: <https://doi.org/10.22683/tsnr.2021.10.3.111>
- [20] D.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pp.1-59, 2004.
- [21] M.E. Aitken,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ennsylvania. pp.1-77, 1982.
- [22] J.W. Park, "Effects of task self-threat and perfectionism on task procrastin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pp. 1-50, 1998.
- [23] J.K. Lee, J.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Vol. 23, No. 5 pp. 84-91,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5.84>
- [24] E. H.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Depression, Anxiety and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33, No. 3, pp. 156-163, 2020. DOI: <https://doi.org/10.15434/kssh.2020.33.3.156>
- [25] S.H. Park, E.K. Byun, "Effect of Academic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in Fe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4, pp.99-106, 2022. DOI: <https://dx.doi.org/10.17703/ICCT.2022.8.4.99>
- [26] K.W. Le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s of Corona-Stress on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 9, No.4, pp.29-44, 2022. DOI: <http://dx.doi.org/10.20496/cpew.2022.9.4.2>
- [27] M.S. Song, H.S. Jung, "The Effects of SNS Addiction Proneness,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the Learning Flow of College Students in the Corona-19 Er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2 pp.186-194,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2.186>
- [28] H.S. Byun, K.H. Kim, D.G. Lee, "The Relationships among Anger 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4 pp. 91-99,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4.91>
- [29] Y.J. Kim, M.H. Chin, "A Study on the Effects of Mentoring program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Around the improvement of Nursing compet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4, pp. 131-139, 2015. DOI: <http://doi.org/10.35873/aimahs.2015.5.4.015>
- [30] Y.J. K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4, No. 8, pp. 265-276, 2020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0.12.14.8.265>
- [31] H.J. Kim, Y.M. Lee,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Major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 No. 1, pp. 692-700,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01.692>
- [32] H.S. Park, D.S. Choi, H.C. Kim,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 13, No. 1, pp. 2079-2091,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1.147>
- [33] G.C. Jeong, "Influence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Grit Moderated by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0, No. 12, pp. 611-622,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12.611>
- [34] E.J. Yim, E.J. Oh,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ademic Delay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lo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10 pp. 125-135,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0.125>

- [35] S.Y. Lim,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2, No. 4, pp. 23-30, 2022.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4.023>
- [36] Y.H. Seo, "The Relationship among Teaching Presence, Perceived Inter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 16, No. 2, pp. 41-63, 2022.
DOI: <http://dx.doi.org/10.18015/edumca.16.2.202205.41>
- [37] M.H. Kim, J.Y. Seo,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s after taking Non-face-to-face Video Lessons for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2, pp. 77-86,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2.77>
- [38] J.G. Kim, J.Y. Hong,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crastination (academic, genera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3, pp.1187-1211, 2021.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3.1187>
- [39] J.H. So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pp. 1-69, 2023.

김 중 경(Jung-Kyung-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2월 ~ 2017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 삶의 질

이 재 겸(Jae-Kyeum Lee)

[정회원]



- 2018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2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20년 9월 ~ 202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겸임교수
- 2021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스트레스, 음악 중재, 운동 중재